

주간 규제 정보

Vol. 398

2022. 05. 16 ~ 2022. 05. 22



목차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서비스 로봇 발전 좌우할 핵심 국제표준 선점 나서 3
2. 전기용품 안전기준(1종) 개정(안) 행정예고 3
3. 무인항공기용 전파항법 기술, 치과 신경치료 충전재 등 산업기술 혁신 이끌 28개 신 기술, 15개 신제품 탄생 4
4. 융복합제품 안전관리 韓美 협력 강화한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5. 식약처, 5월부터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본격 재개 6
6. 식약처, 공공기관과 함께 의료제품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 6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7. 탄자니아, 3종의 유해물질을 화장품 원료 사용 금지물질로 지정 7
8. 일본, 식품접촉물질 사용가능 목록 개정(안) 입법예고 8
9. 대만, 2023년 7월부터 특정 FCM에서 PVC 금지 9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10. 이집트 폴리카보네이트 시장동향 10
11. 독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정 15
12. 브라질 작물보호제 시장동향 17
13. 호주 PVC 바닥재 시장 동향 2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서비스 로봇 발전 좌우할 핵심 국제표준 선점 나서

- 레고처럼 조립하는 '서비스 로봇 호환성 표준' 국제표준 제정 첫발 -

우리나라가 서비스 로봇 기술을 선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로봇 산업 발전을 좌우할 핵심 국제표준 선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서비스 로봇의 소프트웨어 모듈용 정보모델*' 표준안이 신규작업표준안(NP, New Proposal)으로 채택됐다고 15일 밝혔다.

* 정보 모델(Information model): 다양한 모듈(장비) 사이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모듈 간 호환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일종의 통신 소프트웨어 표준

우리나라는 신규작업표준안 채택 여부를 묻는 기술위원회 투표에서 영국, 일본, 중국 등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서비스 로봇 분야 핵심 국제표준 선점의 첫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 국제표준 제정 절차 : 신규작업표준안(NP) → 작업반초안(WD) → 위원회안(CD) → 국제표준안(DIS) → 최종국제표준안(FDIS) → 국제표준(IS) 제정

서비스 로봇은 필요한 기능에 따라 모듈을 탈부착할 수 있는 조립식 장난감과 같은 모듈식 로봇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을 레고를 조립하듯 손쉽게 추가·변경하고 모듈을 결합해 새로운 로봇을 개발할 수 있으며, 모듈별 제작업체 전문화를 통해 개발·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모듈 간 호환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이 바로 서비스 로봇에 사용되는 모듈의 통합과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모듈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제공 방법을 규정하는 소프트웨어 표준이다.(참고) 로봇 모듈의 호환성에 직결되는 모듈용 소프트웨어 입출력 변수, 안전 및 보안 관련 표현 방법, 모듈 간 상호 연결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강원대학교와 경희대학교가 공동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국제표준안을 개발했으며, 강원대학교 박홍성 교수가 국제 프로젝트팀 리더를 맡아 국제표준 제정 절차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 표준은 로봇이 다양한 조합과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서비스 로봇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가 그간 로봇 산업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로봇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처럼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국제표준을 선점하여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2. 전기용품 안전기준(1종) 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2-014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1종) 개정(안) 행정예고

1. 제·개정 및 폐지이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 관련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개정

2. 주요 내용

가.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KC 60947-2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제2부 : 차단기

나. 주요 개정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 신청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
- 연속적인(3회 초과) 단순 오작동 발생 시, 원격지 방문을 통한 전원복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원격복구 누전차단기 개발*
 - * 현행 국제표준(IEC) 및 안전기준(KC)에 원격복구 기준이 없어 인증 취득 불가
 -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6, myo7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6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myo76@korea.kr

출처(국가기술표준원)

3. 무인항공기용 전파항법 기술, 치과 신경치료 충전재 등 산업기술 혁신 이끌 28개 신기술, 15개 신제품 탄생

- 국표원, 「2022년 제1회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 개최 -

위성항법(GPS)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무인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전파항법 기술과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되는 치과 신경치료 충전재 등 산업기술 혁신을 이끌 28개 신기술과 15개 신제품이 탄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5월 18일 「2022년 제1회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43개의 혁신적인 신기술과 신제품에 인증을 부여했다.

* 행사명 : 2022년 제2회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매년 3회 실시)

** 일시/장소 : 2022.5.18(수) 16:00~17:00 / 더케이호텔 서울

신기술(NET) 인증에는 총 146개 기술이 신청했으며, 3단계 심사*를 거쳐 28개(인증률 19%) 혁신기술에 인증을 부여했다.

* 1단계 : 서류·면접심사 → 2단계 : 현장심사 → 3단계 : 종합심사

특히, 지상전파(5GHz 주파수 대역) 송출방식을 활용하여 위성항법(GPS)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무인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기술이 정보통신 분야 신기술로 선정되었으며, 저온 식품의 보관·유통 중 부적절한 온도 노출 여부를 사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도변화 스티커 제조기술이 화학·생명 분야 신기술로 뽑혔다.

신제품(NEP) 인증은 총 132개의 신청 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혁신성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개척이 기대되는 15개 제품(인증률 11%)을 선정했다.

* 1단계 : 서류·면접심사(판매실적 필수) → 2단계 : 현장심사 → 3단계 : 종합심사

특히, 치과 신경 치료시 사용하는 임시 충전재로 미생물막 제거 기능이 향상되어 수입제품 대체효과가 기대되는 젤 타입 근관척약제가 화학·생명분야 신제품으로 선정되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2등급) 허가 완료

재활용이 어려웠던 면섬유 폐기물을 활용하여 기존 목재패널을 대체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활용 섬유패널이 건설·환경분야 신제품으로 선정되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날 인증서 수여식에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인증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하고,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되고 새로운 제품이 세계 시장에 널리 진출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4. 융복합제품 안전관리 韓美 협력 강화한다

- 국표원, 美소비자제품위원회와 제품안전 실무 양자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9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실무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융복합제품 안전관리를 비롯한 제품안전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그 간, 美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와 업무협약(MoU, '12년)을 체결한 이래 정책 교류를 지속하는 동시에, 제품리콜 심포지엄, 글로벌 제품안전혁신포럼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글로벌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융합 신기술 제품에 대한 제품안전 사고 대처 및 안전기준 제·개정 추진 사례 공유 등 실무 협력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이날 양자회의의 첫 논의 주제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이 적용된 융복합제품 안전관리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제품의 기능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하고,

* 시스템 고장, 상황오인, 보안공격, 주변환경(날씨, 전자파 등)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

융복합 제품 출시 정보와 사고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실무자급 양자회의를 정례화하고, 제품시장조사 및 자발적 리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등 한·미 간 제품안전 분야 협력관계

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첨단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융복합제품이 세계 각 국에서 출시되고 있어 제품 안전 분야에서 국가 간 공동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을 비롯하여 생활밀착형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한.미 간 협력을 공고히하고, 나아가 주요국가와의 제품안전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5. 식약처, 5월부터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본격 재개

- 각 국 방역상황 고려해 현지실사… 방문 어려운 곳은 비대면 조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5월 16일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재개합니다.

*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 2년간 의약품 해외제조소에 대한 점검은 비대면으로 진행

○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점검 대상 중 방문 가능한 곳은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입국 제한 등으로 현지 방문이 어려운 국가 내 제조소는 서류나 영상 자료 등으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합니다.

□ 올해 점검 대상은 등록된 전체 의약품 해외제조소*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실시해 선정된 50개소입니다.

* 의약품을 국내에 수입하려면 「약사법」 제42조에 따라 ‘해외제조소’를 등록해야 함

○ 해외제조소 위해도 평가 주요 기준은 ▲식약처 실사 이력 ▲의약품 수입실적 ▲회수 등 위해성 정보 ▲제조소 소재 국가 ▲무균, 주사제 등 위험도를 고려한 품목 특성 등입니다.

□ 식약처는 해외제조소 현지실사가 재개됨에 따라 수입의약품에 대한 점검을 보다 철저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6. 식약처, 공공기관과 함께 의료제품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

- 전략적 제품화 지원…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3개 공공기관*은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자에 효율적인 규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업

무협약을 5월 17일 체결합니다.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이번 협약은 4월 25일 ‘제품화전략지원단’ 발족에 따라, 규제지원 기능이 있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품화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개발 초기 단계 상담이나 규정, 절차문의 등에 대한 상담 ▲ 식약처는 기존 규정으로 임상·허가자료 준비가 어렵거나 규제기관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담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상담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대구) 의약품/의료기기, (오송) 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경기) 첨단바이오의약품

□ 식약처는 업체가 우수한 의료제품을 개발·제품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단계부터 제품화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제품화전략지원단 발족 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번 업무협약으로 식약처의 제품화 지원에 더해 의료제품 초기 설계 단계부터 공공기관에서 밀착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제품화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7. 탄자니아, 3종의 유해물질을 화장품 원료 사용 금지물질로 지정

탄자니아 국가 표준국(Tanzania Bureau of Standards)은 4월 22일 국가의 화장품 원료로의 사용 금지물질 목록에 3종의 신규 유해물질을 추가 등재하였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관련 규제인 화장품 규정*, 화학물질의 분류 표지 및 포장 규정(EU CLP**)에 발암, 돌연변이 유발 및 생식독성(CMR***) 물질로 분류되는데 근거 합니다.

* Regulation (EC) No 1223/2009

** Classification, labeling and Packaging

*** Carcinogenic, Mutagenic and Reproductive toxic.

우선 두 종의 화학물질인 아연 피리티온(zinc pyrithione)과 부틸페닐 메틸프로피온(butylphenyl methylpropional)은 EU 화장품 규정 및 EU CLP 규정에 따라 생식독성(구분 1B)으로 분류되거나 생식독성이 의심되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특히 아연 피리티온은 화장품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제한 물질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종의 화학물질인 하이드록시메틸글리시네이트 나트륨(sodium hydroxymethylglycinate)은 특히

샴푸, 컨디셔너, 비누 및 보습제 등에 사용되는 방부제로써 EU CLP의 조화된 화학물질 분류표지 규정 ****에 따라 발암성 물질로 분류됩니다.

****Harmonized Classification and Labeling

본 고시의 시행일인 4월 22일부터 성분이 포함된 모든 화장품 제품은 탄자니아 내에서 판매가 금지됩니다. 현재 화장품 원료 사용 금지물질 유해물질 목록에는 하이드로퀴논(Hydroquinone) 등 22종의 물질이 등재되어 있고 탄자니아 정부에서는 해당 물질을 포함한 제품 목록을 함께 고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tbs.go.tz/uploads/files/PUBLIC%20NOTICE-%20COSMETICS.pdf>

<https://www.tbs.go.tz/uploads/files/LIST%20OF%20BANNED%20COSMETICS%20.pdf>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1R1902>

<https://echa.europa.eu/substance-information/-/substanceinfo/100.067.576>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8. 일본, 식품접촉물질 사용가능 목록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4월 26일,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특정 물질 그룹을 포함하는 두 개의 표를 제안하는 개편된 식품접촉물질 사용가능 목록 초안을 발표했으며 7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기초원료 및 첨가제에 대하여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원료 : 필수 단량체, 선택적 물질(각 중합체 유형 분류에 대한 중합체의 2차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물질) 및 필수(또는 선택적) 화학 처리에서 파생된 부분의 98% 이상을 포함. 단, 필수단량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2% 미만이어야 함
- 첨가제 : 합성 고분자 중합체, 정제된 천연 유래 물질, 유기 소분자 물질 및 식품 첨가제를 포함하도록 제안. 단, 합성고분자 고분자는 상온, 상압에서 액체인 것과 기질에 특이한 효과를 발휘하는 특수한 기능을 가진 고분자(분자량 약 2,000을 기준으로 함)에 한정

또한, MHLW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물질을 사용가능 목록에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 보류 물질 - 첨가제가 아닐 수 있고 조사가 필요한 물질
- 삭제 예정 물질 - 지난해 12월 24일에 발표된 목록에서 삭제될 첨가제
- 통합 물질 - 목록에 포함되었지만 다른 물질에 통합된 물질

기업은 보류/통합 물질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성 수지의 원료로 간주되지 않는 물질 및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은 첨가제와 같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는 물질에 대한 의견은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473303/japan-consults-on-restructuring-fcms-positive-list>

https://www.mhlw.go.jp/stf/newpage_25201.html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9. 대만, 2023년 7월부터 특정 FCM에서 PVC 금지

대만은 물질 사용의 영향에 대한 환경 및 건강 우려로 인해 2023년 7월 1일부터 폴리염화비닐(PVC*)를 함유한 특정 식품 접촉 물질(FCM**)의 생산,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합니다.

* Polyvinyl Chloride

** Food Contact Materials

금지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여 PVC가 포함된 플레이트 포장 재료와 지정된 재활용 가능 및 플레이트가 아닌 일회용 식기 용기에 적용됩니다.

- 동물성 식품
- 유제품
- 식수
- 조미료
- 술

4월 29일, 대만 환경보호청(EPA*) 발표에 따르면 FCM에 PVC를 사용할 때 가소제가 음식이나 음료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폐기 과정에서 소각 시 다이옥신과 중금속이 환경으로 방출됩니다.

*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PVC는 플라스틱 병 및 식품 포장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탈레이트와 같은 가소제는 PVC를 더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479775/taiwan-to-ban-pvc-in-certain-fcms-from-july-2023>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10. 이집트 폴리카보네이트 시장동향

- 강화유리보다 내구성이 좋아 건설현장 등에서 산업수요 다대
- 한국산 제품 이미지 좋아 시장점유율 상위권 차지

상품명 및 HS 코드

폴리카보네이트로 HS 코드 390740에 해당한다.

시장규모 및 동향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는 대표적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내구성이 강하고 가공이 쉬워 각종 산업현장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자재이다. 이집트에서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마스크 외에 얼굴 전체를 덮는 페이스셴드를 제작하기 위해 폴리카보네이트 수입수요가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폴리카보네이트는 내구성, 가공성이 우수하고 절연성도 좋아 전화기, LCD 등 전자제품 부품으로도 활용되고 특히 이집트에서는 건설자재로도 좋은 자재로 사용되고 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로 변형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PC시트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부품, 건설자재 등에 활용되어 관련 산업들의 성장세에 힘입어 폴리카보네이트 수입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폴리카보네이트는 가공형태(시트필름, 블랜드, 중공)와 최종사용처(자동차 부품 자재, 전자제품 부품자재, 건설자재, 의료용품 자재)에 따라 시장을 구분지을 수 있으며 각 산업수요에 따라 그 시장의 규모가 결정된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락다운 등으로 건설산업 활동이 위축되어 건설현장에 사용되던 폴리카보네이트 수요가 급감해 전체 폴리카보네이트 수입규모가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개인방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집트에서는 마스크 대신 전체 얼굴을 덮는 페이스셴드에 대한 수요가 있어 페이스셴드 제작용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마스크보다 페이스셴드가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고 착용감이 마스크보다 더 편하기 때문에 아이들용으로 제작이 많이된다. 더불어, 이집트에서는 페이스셴드를 착용해도 밀집시설 입장에 제약이 없어 페이스셴드 수요가 있는 편이다. 또한, 코로나19 시기에 오랜 시간 높은 강도로 일하는 의료계 종사자들을 위한 페이스셴드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폴리카보네이트는 활용처가 다양한데, 채광창, 지붕, 커튼월, 사무실 칸막이, 비닐하우스, 디스플레이 및 간판 등에 사용된다. 다양한 색상, 형태 및 모양으로 제작이 가능해 건설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재료이다. 특히 내구성이 강화유리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파손 위험이 있는 유리대신 폴리카보네이트를 창으로 사용하는 학교와 유치원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폴리카보네이트는 유리에 비해 이집트의 강한 햇살을 적당히 막아줄 수 있어서 유리창 대용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편, 이집트에서 폴리카보네이트가 자체생산되고 있지는 않고 전량 수입하여 수입규모를 통해 전체 시장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집트 폴리카보네이트 수입규모>

(단위: US\$ 천, %, T)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수입액	35,902	25,680	37,898
증감률	-	△28.5	47.6
수량	23,590	12,440	235,530

[자료: Connect by IHS Markit - CAPMAS]

이집트 수입동향 및 대한 수입규모

<3년 간 국별 폴리카보네이트 수입규모>

(단위: US\$ 천,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률 ('20~'21)	2019년	2020년	2021년
1	사우디아라비아	7,423	8,920	10,568	18.5	20.7	34.7	27.9
2	헝가리	3,510	4,370	7,778	78	9.8	17	20.5
3	대한민국	7,726	4,295	7,133	66	21.5	16.7	18.8
4	독일	2,124	2,304	3,380	46.7	5.9	9	8.9
5	이탈리아	2,684	1,055	1,018	△3.5	7.5	4.1	2.7
6	중국	899	960	1,683	75.2	2.5	3.7	4.4
7	유럽연합(EU)	325	593	1,503	153.4	0.9	2.3	4
8	일본	1,117	1,396	482	△65.5	3.1	5.4	1.3
9	벨기에	2,540	666	354	△47	7.1	2.6	0.9
10	슬로베니아	6,047	421	0	△100	16.8	1.6	0
	총 합	35,902	25,680	37,898	47.6	100.00	100.00	100.00

주: 총 수입액은 상위 10개국 수입액의 합과는 다름

[자료: GTA/Connect by IHS Markit - CAPMAS]

<바이어 인터뷰로 보는 국별 수입사유-사우디아라비아>

수출국 / 브랜드	사우디아라비아 / Saudi Arabia Basic Industries Corporation (SABIC)
현지 에이전트	Lexan Egypt
선호사유	SABIC은 2019년에 플라스틱 업계 선두기업인 Elkamet Kunststofftechnik GmbH 와 파트너십을 맺어 폴리카보네이트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특히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생산에 특화된 업체이다. 기술력이 좋아 최종생산제의 내구성 및 형태가 산업수요에 적합해 선호되는 제품이다.

[자료: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체수집]

<바이어 인터뷰로 보는 국별 수입사유-헝가리>

수출국 / 브랜드	헝가리 / Polimeri Tecnici S.A.
현지 에이전트	A.H.M Company for Trade and Supplies
선호사유	고객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폴리카보네이트 입자를 다양한 패키지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이다. 또한 헝가리가 이집트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운임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고 리드타임도 짧아서 경쟁력이 있는 편이다. 제품의 질도 좋고 짧은 운임시간 덕에 제품도 제 때 받아 볼 수 있어 장점이 있다.

[자료: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체수집]

<바이어 인터뷰로 보는 국별 수입사유-대한민국>

수출국 / 브랜드	대한민국 / Lotte Chemical Corporation
현지 에이전트	Al Yosser Optical
선호사유	이집트에서 롯데의 명성은 높은 편으로 제품의 질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이다. 중국산에 비해 질적으로 매우 우수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최고의 내구성을 지닌 제품으로 가격 대비 질이 우수하여 인기가 있다.

[자료: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체수집]

<한국으로부터의 폴리카보네이트 수입 동향>

(단위: US\$ 천, %, T)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수입액	7,726	4,295	7,134
증감률	-	△44.4	66.1
수량	3,045	2,301	229,141

[자료: GTA/Connect by IHS Markit - CAPMAS]

코로나19로 의료계 쪽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수요가 급증한 면도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을 지나 2021년과 2022년에는 건설업 내 폴리카보네이트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두산중공업을 비롯해 이집트 건설중장비 및 건설자재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는 좋은 편으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산 폴리카보네이트 역시 질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이 많다. 건설업이 다시 활기를 띄고 다양한 산업수요가 코로나19 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폴리카보네이트 수입수요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동향

<주요 폴리카보네이트 경쟁기업>

(단위: US\$ 천, %)

브랜드	원산지	가격	시장점유율
SABIC	사우디아라비아	3 ~ 4	20
Polimeri Tecnici S.A.	헝가리		15
Lotte	대한민국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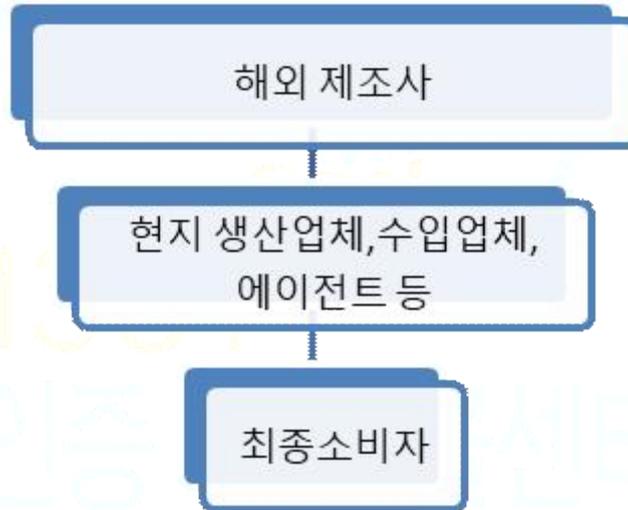
주: 시장점유율은 바이어 인터뷰에 근거한 추산치임

[자료: A.H.M Company for Trade and Supplies]

위 브랜드 외에도 MP(중국), Covestro(독일), Chi Mei(대만), Asahi Kasei Corporation(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브랜드들이 시장에 진입해 있다. 제품 가격은 브랜드, 원산지, 생산업체, 제품형태 및 색상, 인코텀즈 조건 등에 따라 다르지만 1톤 당 2,500달러에서 3,750달러 선에 머무르고 있다.

유통구조

<폴리카보네이트 유통구조>



[자료: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체작성]

폴리카보네이트는 고객이 요청하는 형태 등에 맞춰 제조되어 이집트 현지 수입업체나 에이전트로 전달된 후 최종소비자로 전달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일부 페이스쉴드 등 간단한 제조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해외제조사로부터 직수입해 제품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제품 운송이나 가격협상이 용이하기 때문에 전문 수입업체나 에이전트로부터 물품을 조달 받는 경우가 더 흔하다.

<주요 업체 개요>

업체명	개요
Momai Engineering & Supplies	Momai Engineering & Supplies은 1998년에 설립된 업체로 린스 파우더, 염료를 주로 취급하며 플라스틱 업계의 현지 에이전트로 활동해 왔다. 오랜 시장경험을 바탕으로 PS, PP, PE, PC, ABS, SAN, PVC 등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Elmasryah Company for Export and Import	Elmasryah Company for Export and Import는 2006년에 설립된 업체로 미세유리시트와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를 취급하며 특히 중공 및 골판지 형태의 시트 제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범용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 안료, 과산화물, 첨유유리 로빙 에멀전, 분말 및 ARC 유리 등도 취급한다.
A.H.M Company for Trade and Supplies	A.H.M은 2009년에 설립된 업체로 Rinbow, Polinet, Karboline 브랜드의 단독 에이전트이다. 전열제와 피복제를 전문으로 하며 폴리카보네이트, 아크릴 시트 및 UPVC 지붕 시트 등을 취급한다.
United Traders & Agencies Professionals (UTAP)	United Traders & Agencies Professionals (UTAP) 는 1997년에 설립된 업체로 EOPT라는 폴리카보네이트 전문취급 업체의 자회사이다. EOPT는 1981년에 설립되어 이집트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제품 설치에

	전문성을 쌓아왔다.UTAP와 EOPT는 이집트에서 폴리카보네이트, 폴리 커튼 플레이트를 취급하는 현지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품 설치와 공급처 확보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G Crystal Plastic Industries	G Crystal Plastic Industries는 2017년에 설립된 업체로 중공(다중벽), 양각(크리스탈 및 프리즘) 및 솔리드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자료: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체수집]

관세율, 인증

관세는 면세이며 그 외에 부가가치세 14%가 부과될 수 있다. 이집트 수출입령 제 770조-2005와 주요 검사분야(수입중단품, 중고품으로 수입할 수 있는 품목, 특약에 따라 수입되는 품목, 수입품질관리대상 품목 및 검사수수료)를 확인해 본 결과 폴리카보네이트 수입을 위한 별도의 규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집트 세관에 문의 결과 오존층을 이용하는 위험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폴리카보네이트는 이집트 환경청(EEAA)이 승인이 없는 한 수입이 금지된다. 이집트 품질관리국(EOS)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표준이 권고되나 필수는 아니다.

- 1) No. 151-3-6 / 2006 (국제표준 IEC 60454 -3-6/1998에 준하는 표준)
- 2) No. 151-3-7 (국제표준 IEC 60426:1973 에 준하는 표준)
- 3) No. 8229 (국제표준 ISO 11963:2012 에 준하는 표준)
- 4) No. 8230 / 2018 (국제표준 EN 16153:2013 + A1:에 준하는 표준)

특히 이집트 수입시장에서 ISO 인증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다는 인식이 있어 가능하면 ISO 인증을 획득하면 좋다. ISO 9001:2015, ISO 45001:2018가 일반적인 인증표준이다.

시사점

폴리카보네이트 수입관세가 면세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집트 수출을 위해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중 하나가 높은 관세율인데, 폴리카보네이트는 관세도 없고 그 외에 필요한 인증도 없어서 이집트 시장 진출에 용이한 제품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국의 저가공세에도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이미지가 좋은 편이라 우수한 품질을 앞세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폴리카보네이트가 건설현장과 전자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관련 이집트 산업동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이집트 정부는 외환보유액 방어를 위해 모든 수입거래에 대한 신용장의 무방식을 도입하면서 신용장 개설이 더더 수입물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더불어 전세계적 인플레이션 기조에 따라 일반 소비 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건설업과 그 외 전자제품 산업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품목인 폴리카보네이트 수입수요가 얼마나 성장할지는 관련 산업 수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료: Connect by IHS Markit, GTA/Connect by IHS Markit, 바이어 인터뷰 및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1. 독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정

- 독일 2022년 7월 1일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개정
- 적용대상 모든포장재 및 운송포장재로 확대
- 온라인 플랫폼 판매기업 사전대응 필요

2022년 7월 1일부터 독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개정된다. 적용 대상이 모든 포장재로 확대되며 운송포장재도 해당되기 때문에 독일향 온라인 판매자 및 제조사 및 유통사, 해외통신 판매기업은 신규정을 숙지하고 사전대응을 해야 한다.

독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란

독일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1990년 제정된 독일 폐기물 포장명령(The Waste Package Ordinance)을 바탕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신포장재법(Packaging Act, 이하 포장재법)에 기초하고 있다. 생산자책임제이란 생산자에게 상품 디자인부터 마지막 단계인 폐기물 수거에 이르기까지 상품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우는 환경정책이다.

개정된 내용은

독일 포장재법은 ① 그동안 면제되던 운송포장재의 문서화 및 보관의무, ② 온라인 등록 플랫폼의 (아마존, 이베이) 셀러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파손방지를 위한 보조포장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온라인 판매기업 및 수출기업이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독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정 내용 요약

- 플라스틱(Kunststoff)의 정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화학처리가 된) 모든 물질을 포함함.
- 1회용 플라스틱 음료수 용기의 분리수거 목표의 상향조정
- 1회용 플라스틱 음료수 용기 재활용 목표 상향 조정
- 독일 외부 위치 업체는 독일 내 대리인 지정은 가능하나 시스템 등록은 직접 이행
- 상품 제조사 및 마지막 판매자의 포장재 처리(환수/수거/폐기) 위한 적절한 조치 방법 공지 의무
- 2022년 1월 1일부터 법률로 지정한 현재 시스템 등록 의무 면제 포장재(대량운송포장재, 산업용 포장재, 위험물 포장재 또는 재활용 포장재)들에 대하여 ① 거래량 ② 회수율 ③ 재활용률 정보들을 문서화 및 보관 의무 발생
- 당년 작성 정보는 익년 5월 15일까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국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을 의무가 발생(문서 제출 의무는 매년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 포장재 제조사는 2022년 7월 1일부터 운송사에 의해 사용된 포장재에 대한 책임도 위임해야 함.
- 시스템 등록 포장재 범위가 2022년 7월 1일부터 모든 포장재로 확대
- 2023년 1월 1일부터 1회용 플라스틱 식료품 보관용기, 1회용 플라스틱 음료수 컵 등의 최종 판매자는 재활용 용기로 전환 또는 대체
- 2024년 1월 1일부터 우유 등 유제품 팩, 1회용 PET병 등으로 공병환수제도 확대
- 2025년 1월 1일부터 재활용 불가 PET 병 중량의 25% 이상을 재활용 플라스틱이 포함돼야 함.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에는 누가 해당되나

이 법에서 규정하는 생산자란 집합적인 의미로, 제조사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며 해당 상품을 독일에 처음 들여온 주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조사, 수입자, 유통사, 혹은 해외 판매업체(온라인 및 통신판매)도 무역

조건(Incoterms)에 따라 생산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일반적인 독일향 수출기업의 경우, 수입자와 합의한 운송조건이 정한 책임 범위에 따라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E 및 F 조건(EXW, FOB, FAS)은 수입자가, C 및 D 조건(CIF, DAT, DDP)의 경우 수출자가 생산자로 간주된다.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이베이 등) 판매자의 경우 기본 및 보조 포장에 대한 모든 책임이 셀러에게 부과되며, 이는 아마존주문처리시스템(풀필먼트 FBA) 및 판매자 자체배송(MFN)의 경우에도 공히 적용된다. 플랫폼에도 셀러의 EPR번호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부여됐기 때문에 셀러는 해당 플랫폼에 EPR 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통관 거부 및 최대 20만 유로(약 2억6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등록절차 및 분담금 납부 절차는

1) 상품 유통 전, 본 제도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독일연방관할재단(ZSVR, Zentrale Stelle Verpackungsregister)의 포장등록 포털인 LUCID에 (<https://lucid.verpackungsregister.org>) 법인정보(회사명, 사업자번호, 세무번호 등)를 제출해 등록번호(Registrierungsnummer)를 받는다. 등록번호는 "DE"+13자리 숫자로 이루어지며,(예:DE1234567891011), 매년 5월 15일에 전년도에 생산(유통)한 포장재 종류 및 수량을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법을 정당하게 이행하였음을 선언하는 이른바 "완전성선언(Vollstaendigkeitserklaerung)" 제출해야 한다. 상기 포털에 등록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으며 독일 내 지사가 없는 역외 기업의 경우 독일 내 법률상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를 지정할 수 있으나 등록의무 자체는 위임 불가하며 문서화 의무, 정보고지 의무 및 제조자의 분담금 처리 등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완전성 선언(Vollstaendigkeitserklaerung)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생산량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 80t(8만 kg)/1년 미만의 유리
 - 50t(5만 kg)/1년 미만의 종이 및 종이상자
 - 30t(3만 kg)/1년 미만의 철제금속, 알루미늄, 플라스틱, 음료수상자 또는 기타 합성 포장재
- 단, 생산량이 완전성 선언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관할당국에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당국으로부터 언제든지 완전성선언 제출을 요구 받을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주의 해야 한다.

2) 포장재법은 포장재의 회수와 재활용을 생산자책임기구(Dual System)에서 공인한 공급자(현재 11개사)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책임기구에서 공인한 공급자 중 적합한 업체를 선택, 분담금을 납부하고 라이선스를 구입한다. 분담금액 및 납부기간(월, 분기, 연)은 포장재의 소재의 종류 및 양에 따라 상이하다.

- 생산자책임기구(Dual System)에서 공인한 공급업체 목록은 하기 주소 참고
<https://www.verpackungsregister.org/en/information-orientation/instructions-further-information/systems-overview#c3%E2%80%9D519>
- 공급업체 비교사이트(독일어로만 제공)
<https://www.verpackungslizenz-vergleich.de/anbieter/>
- 단순하고 소량의 포장재(1Kg부터)를 신고할 경우, Reclay Systems GmbH사의 서비스를 통해 5단계의 절차를 거쳐 간소하게 처리 가능 → 이용방법(https://www.youtube.com/watch?v=4bWD0kmyo_0)
- 아마존 셀러의 경우 아마존 셀러 센트럴의 EPR 서비스 공급업체 네트워크 정보를 적극 활용

시사점

독일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세계최초로 생산자에게 포장재 회수 의무를 부과한 제도로, 이와 같이 생산자에게 환경 위해성을 저감책임을 부과하는 정책은 향후 유럽연합 가입국으로 확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럽연합에 수출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은 변화하는 규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분석을 통한 대응책을 마

런해야 할 것이다. 이 법 개정 내용의 핵심은 그 동안 시스템 등록 의무 면제됐던 운송 포장재(에어캡, 완충재 등)에 대한 등록의무로써 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판매 기업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해석돼 국내 온라인 유통기업의 경우 해당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역 조건상 E 조건, F 조건을 통해 수출하는 국내 일반 수출업체의 경우라도 독일 수입업체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운송포장재(팔렛, 카톤, 호일 등)에 대한 회수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수출자와 수입자 간 상호 협정 및 계약을 통해 회수의무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 독일 EPR제도 관련, 한국어로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독일 현지 전문 업체 연락처

① 회사명: LEBENKO GmbH, IGC Germany (<http://lebenko.com/>)

- 이메일: info@lebenko.com

- 전화번호: +49 (0)69 7579 5991 (070 전화번호: 070 4517 7768)

② 회사명: Avocado Communications(<https://avocadocom.eu/>)

- 이메일: ecomm@avocadocom.eu

- 전화번호: +49 (0)30 2789 7272

자료 : Zentrale Stelle Verpackungsregister(<https://www.verpackungsregister.org/en>), 한독상공회의소, KOTRA 뮌헨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2. 브라질 작물보호제 시장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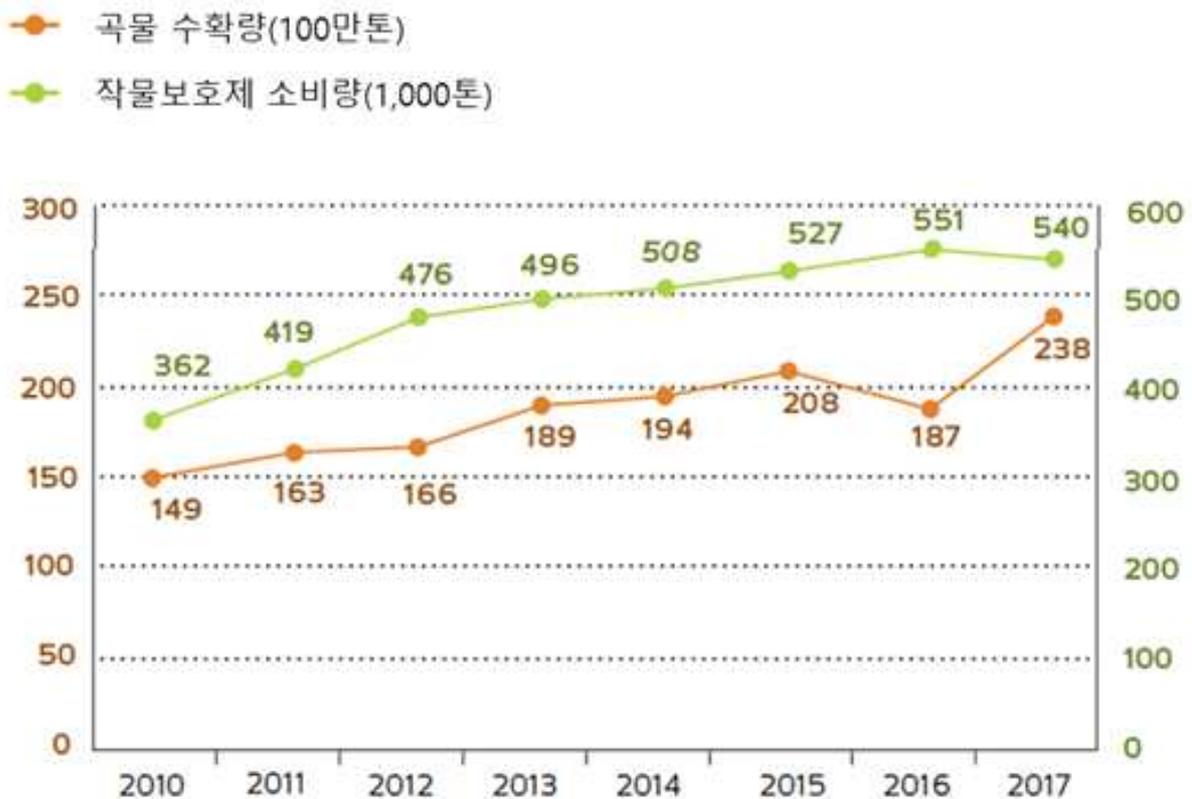
- 브라질 작물보호제 시장 규모는 약 130억 달러
- 2020년 이후 공급망 문제로 원료 조달, 생산에 차질을 빚음
- 연방정부는 작물보호제 등록과정을 현대화, 간소화하고 있음

브라질 작물보호제 산업

작물보호제는 곡물, 과일, 채소 등 농산물을 곰팡이, 해충, 곤충, 잡초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화학 물질로 농약이라고도 불린다. 유럽 곡물 보호협회(ECPA)는 농가들이 작물보호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세계 작물의 40%가 해충 등으로 인해 소실될 수 있고 작물보호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피해 비율은 85%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브라질은 세계적인 곡창 지대로 대두, 옥수수, 사탕수수, 목화, 오렌지 등의 생산량은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올라있다. 경작 면적이 넓은만큼 브라질의 작물보호제 소비량도 세계적으로 많다. 브라질은 러시아, 캐나다, 우크라이나 등 타 곡창지대와 비교해서도 작물보호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농경지 중 마토그로썬, 바이아 등 열대기온을 지닌 지역이 많고 대두, 옥수수 등 단작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단작 재배 시 한 병해충이 발생하면 피해가 견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농가들은 작물보호제를 많이 투약한다. 브라질의 비옥한 토양 및 기후 덕분에 농가들은 1년에 2~3모작이 가능한데 토지에 영양분을 제공하기 위해 '대두 - 옥수수 - 대두' 등과 같이 작물을 번갈아가며 심는다. 1년에 여러 작물을 심기 때문에 1년에 1모작을 하는 나라들과 비교해서 투입되는 작물보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브라질은 소, 닭, 돼지 등 가축을 많이 재배하는데 해충의 피해로 대두,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들면 사료가격이 올라가서 가축 재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브라질 농약제품생산조합(Sindiveg)은 "2020년 기준 브라질에 105만톤의 작물보호제가 사용되었고 작물보호제의 19%는 상파울루주, 미나스제라이스주에, 7%는 마토그로썬주, 혼도니아주에 투약되었다"고 발표했다. 작물보호제 금액 기준으로 보면 대두 48%, 옥수수 13%, 사탕수수 11%, 목화 10%, 채소/과일 4%, 커피 3% 비율로 농약이 투약되었다. 면적으로 보면 2021년 3분기 브라질 농약 살포지역은 2억93만 헥타르로 2020년 동기에 비해 8.7% 증가했다. 브라질에 작물보호제를 판매하는 주요 기업은 바스프(Basf), 바이에르(Bayer), ADAMA, FMC, 코르테바(Corteva), 신젠타(Syngenta), 몬산토(Monsanto), IHARA, 누팜(Nufarm), 듀퐁(Dupont) 등이 있다. 이 중 바이에르(독일), 바스프(독일), 신젠타(중국/스위스), 코르테바(미국)의 존재감이 크다. 작물보호제 소비량은 곡물 생산량과 비례하는데 브라질 농가들이 대두, 옥수수, 사탕수수, 목화 등 재배를 늘리면서 작물보호제 소비량도 정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작물보호제 사용량과 곡물 생산량의 관계>



*Composto responsável pela atividade do agrotóxico

FONTE CONAB E IBAMA

[출처 : CONAB, IBAMA]

브라질 작물보호제 시장규모는 연간 100~130억 달러 수준이다. 달러화 기준 2020년 작물보호제 매출액은 2019년 보다 감소하였는데 2020년 3월 이후 브라질 내 코로나19가 창궐하여 경제가 침체되고 헤알화가 약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헤알화 기준 매출액은 2019년 538억 헤알에서 2020년 591억 헤알로 증가하였다.

<브라질 작물보호제 통계>



[출처 : Sindiveg]

브라질에 작물보호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통과하는 것이 관건

곡물 시황 호조로 브라질 작물보호제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유통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브라질에서 작물보호제 인증은 농축산부(MAPA), 보건부의 국가위생감시국(ANVISA), 환경부의 연방환경청(IBAMA)이 담당한다. 농축산부는 농약의 효과성/효율성, 국가위생감시국은 농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독성), 연방환경청은 농약이 하천, 토양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세 기관의 심사를 통과하고 제품이 연방정부에 등록되면 기업은 농약을 유통할 각 주정부에 제품을 등록해야 한다. 각 주정부는 농약의 등록, 저장, 상업활동, 운송, 환경영향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현대적인 작물보호제는 1960년대 이후 대대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토양/수질오염, 동물 독성 중독, 곤충 멸종 등 사건이 많았고 농장 근로자나 마을 주민들이 호흡기, 심장 질환에 시달린 경우도 많이 있었기에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브라질 농약제품생산조합(Sindiveg)은 브라질에서 작물보호제를 등록하는데 평균 7~8년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기존 타 브라질, 타국가에서 사용되지 않은 성분의 농약의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작물보호제 등록에 걸리는 기간은 세계 평균 2~3년이고 멕시코 4~5년, 안데스공동체(ANDINA)도 2~3년으로 브라질 보다 짧다. 브라질은 26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기에 연방정부에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각 주에 제품을 등록하는 시간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복잡성 및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브라질에 작물보호제를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상품개발 단계부터 인증을 받는 복잡한 절차와 오랜 시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브라질 작물보호제 시장 동향

1) 2020~2021년 작물보호제 부족 현상

2020년 3월 코로나19는 브라질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는데 관공서의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자 통관, 물류 등 작업이 둔화되었다. 브라질은 작물보호제의 약 50%, 작물보호제 원료의 약 70%를 중국 등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코로나19로 물류망이 마비되자 수입액이 상승하여 제조원가가 높아졌다. Itaú BBA은행은 중국산이 브라질 작물보호제 수입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중국은 제조제인 글로벌세이트를 많이 생산한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2021년 중순 중국정부가 탄소 배출량 절감 목표를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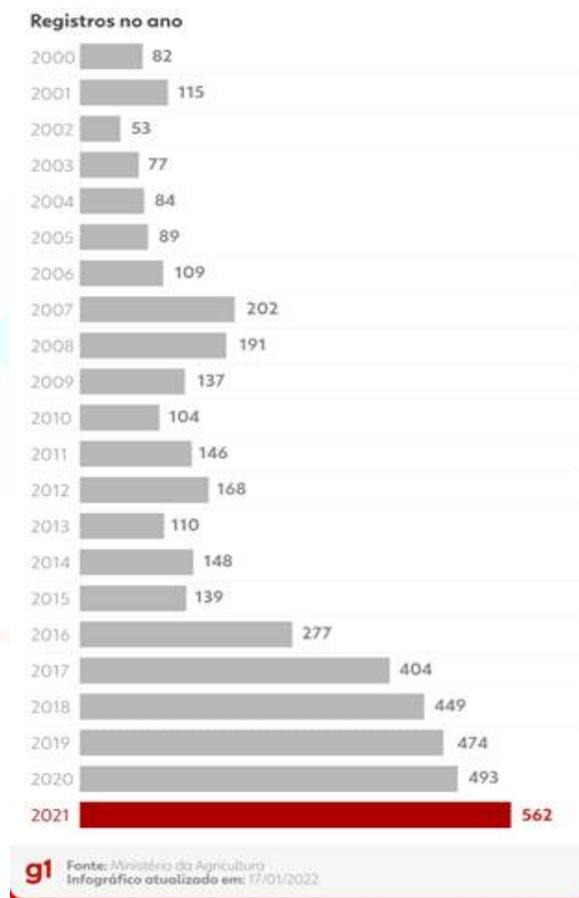
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제한하자 작물보호제, 비료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가동이 중단되었고 브라질 기업들의 작물보호제 및 원료 수급에 타격을 주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라질 의회는 임시법안 'PL 4.316/2021' 등을 발의하여 메르코수르 국가의 작물보호제를 별다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하는 등 여러 방안을 찾고 있다.

브라질 내 작물보호제 공급이 줄어들자 허가되지 않은 불법 작물보호제 유통이 늘어나고 있다. 브라질 농약 제품생산조합은 브라질 내 불법 작물보호제 비율이 20%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불법 작물보호제는 정부기관의 실험이나 심사를 거치지 않아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환경이나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브라질은 국경선 길이가 168,000kg에 달하고 11개 주가 10개의 이웃국가와 국경을 마주하여 단속이 어렵다. 농약을 포함한 밀수액은 연간 200만 헤알에 달한다.

2) 2010년대 중반 이후 작물보호제 등록 증가

2016년 이후 브라질의 작물보호제 등록 건수가 급증하였다. 이는 라바자투(Lava Jato) 이후 미셰우 테메르(Michel Temer)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와 겹친다. 2019년 취임한 보우소나루 대통령도 농산업 육성을 중요시하며 국가 위생감시국 등 기관이 빠르게 작물보호제를 등록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21년에 등록된 562개의 작물보호제 중 33개(5.9%)가 신제품이며 529개(94.1%)는 기존에 나온 제품을 복제한 제네릭 제품이다. 신제품 중 8개는 중간재, 12개는 최종재이며 13개는 미생물, 자연 유래 추출물로 생산한 '바이오 작물보호제'이다. 주요 신제품으로는 Halauxifen-metil, Ciclaniliprole, Oxatiapiprolim, Fenpropimorfe, Ametoctradina, Isofetamida, Impirfluxam, Mefentrifluconazol 등이 있다. 제네릭 제품이 많이 등록되면서 경쟁이 심해져 작물보호제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작물보호제 등록 수>



[출처 : 브라질 농축산부]

3) 바이오 농약에 대한 관심 증가

브라질 내외에서 독성이 높은 작물보호제 사용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브라질에 진출한 농화학 기업들은 미생물, 자연 유래 추출물로 만든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인 바이오 작물보호제 개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바이오 작물보호제는 자연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장점이 있다. 시장 정보회사인 IGH Markit는 2021년 브라질 바이오 작물보호제 판매액이 10억 헤알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바이오 작물보호제는 아직 시작단계로 많은 투자 및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연방정부도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증과정을 간소화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 브라질 농업 연구청(Embrapa)도 바이오 작물보호제를 개발하기 위해 여러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인공지능 등 기술을 활용하여 작물보호제 사용량을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 브라질 스마트팜 기업들은 센서 및 소프트웨어로 작물보호제 살포구역을 한정하여 농약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농기계에 부착된 센서가 토지 및 작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작업자에게 어떤 작물보호제를 어디에 얼마 정도 투입할지 안내해준다.

4) 작물보호제 인증 간소화 움직임

'Lei nº 7.802/1989'는 브라질 작물보호제 산업을 규정하는 법률으로 농약 등록방법, 적정 사용량, 사용자, 유통과정 등을 규정한다. 이 법은 '브라질에서 농축산부(MAPA), 국가위생감시국(ANVISA), 연방환경청(IBAMA)이 농약 제품 등록 및 심사를 담당'하고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점 등' 농약 관련 전반적인 법적 요소를 다룬다. 대다수의 농기업, 농가, 협회 등은 작물보호제 인증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브라질 옥수수 생산자 협회(Abramilho), 브라질 대두 생산자 협회(Aprosoja) 등은 물류난 장기화 등으로 작물보호제 원료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에 농약 인증절차를 간소화 하여 더욱 많은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두 생산자 협회는 2022년 1월 농축산부에 긴급으로 제초제인 다이콧(Diquat), 파라콧트(Paraquat) 제품의 등록 및 유통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고로 연방정부는 2015년 왕담배나방 유충(Helicoverpa armigera caterpillar)를 통제하기 위해 살충제인 'Emamectin Benzoate'의 긴급 유통을 허가하기도 하였다.

브라질 상원은 임시법안(Projeto de lei 6299/2002)을 상정하여 투표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는 작물보호제를 심사하는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해야 하며 농축산부(MAPA), 국가위생감시국(ANVISA), 연방환경청(IBAMA)은 기업이 작물보호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시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 후 2년 내 심사를 받지 못한 제품은 임시 라이선스를 받아 브라질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다만, 임시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 제품은 OECD 국가 3개 이상에서 라이선스를 받았어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더 많은 다국적 농화학 기업이 브라질에 투자를 진행하고 경쟁이 심화되어 작물보호제 유통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축산부가 작물보호제 등록과정에서 더 많은 권한을 가지는 법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농축산부(MAPA), 국가위생감시국(ANVISA), 연방환경청(IBAMA)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제품을 심사하는데 만약 농축산부의 권한이 커지고 위생감시국, 연방환경청의 심사가 보조적인 수준으로 변경된다면 심사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2021년 10월 대통령령 'Decreto nº10.833'을 발표하여 작물보호제의 등록과정을 간소화하고 바이오, 제네릭 농약 등록을 장려할 계획이다. 이는 2002년 발표한 'Decreto nº 4.074'의 개정안이다. 연방정부는 작물보호제 등록과정을 현대화하면서 불법(밀수)농약 사용 및 잘못된 작물보호제 살포는 더욱 강하게 규제할 예정이다.

5) 작물보호제로 인한 환경오염 및 식품 안전성에 대한 비난

독일 환경단체는 2021년 브라질이 유럽에서 인증되지 않는 독성이 강한 작물보호제를 사용한다고 비난하였다. 그린피스도 "보우소나루 정권 3년 동안 승인된 작물보호제가 2000년 이후 승인된 제품 수의 절반에 달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린피스는 작물보호제 인증/등록을 간편화시킨 법률 'Lei 6.299/02' 때문에 독성이 강한 농약들이 브라질에 많이 유통되는 상황을 우려한다.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 (Codex Alimentarius)에 따르면 브라질은 약 160개국에 식량을 수출하는데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농약이 포함된 곡물이나 과일이 본국에 수입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 등 기관들은 브라질의 면적 혹은 곡물 생산물 당 작물보호제 사용량은 낮다고 국제기구나 유럽 기관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워싱턴 대학교 자료에 따르면 주요국의 농경지 헥타르당 작물보호제 사용량은 네델란드가 20.8kg, 일본 17.5kg, 벨기에 12kg 등 상위권에 있고 브라질은 4.2kg에 불과하다. 농약제품생산조합 자료를 보면 곡물 생산량 당 투입된 작물보호제 가격은 일본 100달러로 가장 높고 브라질은 10달러 밖에 되지 않는다. 헥타르 당 투입되는 작물보호제 가격도 일본이 1200달러로 1위고 브라질은 200달러 정도다.

국가위생감시국은 2013~2015년 '작물에 잔여하는 작물보호제 분석 프로그램(Programa de Análise de Resíduos de Agrotóxicos em Alimentos)'을 개시하여 대두, 옥수수, 오렌지, 상추 등 12,000개의 농산물 샘플을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의 샘플은 농약 성분이 없고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었다. 오렌지에서 가장 많은 농약이 발견되었는데 744개 샘플 중 90개에서 위험성이 있는 오염 요소를 발견했다. ANVISA는 2017/2018년에도 같은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99.1%의 샘플이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2021년 국가별 헥타르 당 작물보호제 사용량>

Figura 1. Consumo relativo de defensivos agrícolas (Kg i.a/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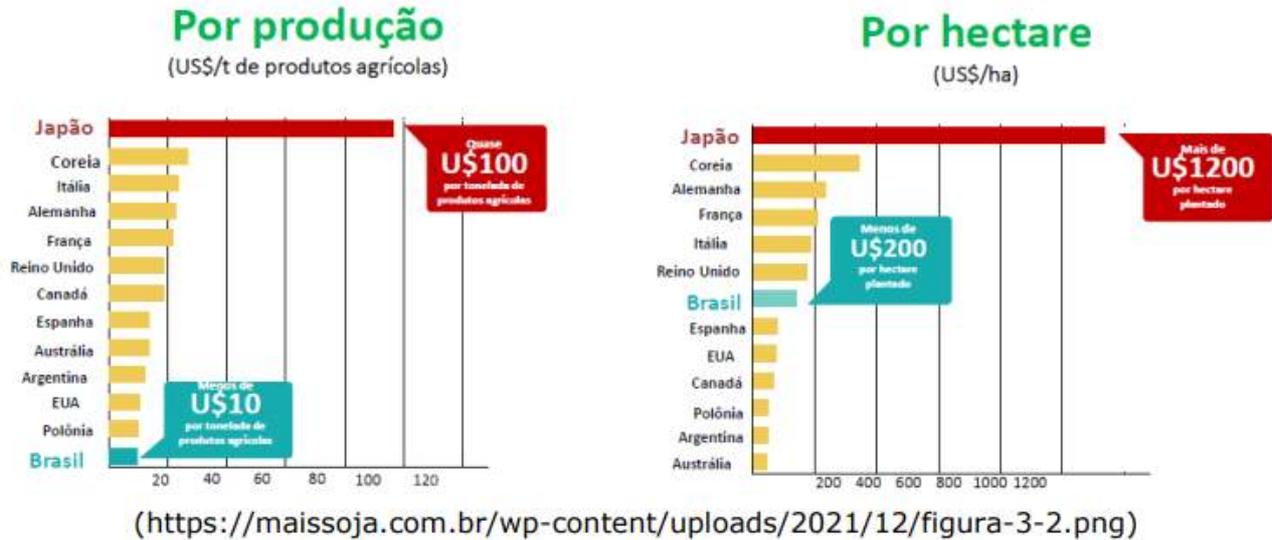


(<https://maissoja.com.br/wp-content/uploads/2021/12/figura-1-10.png>)

Fonte: Wageningen University; US - EPA

[출처 : 워싱턴 대학교]

<국가별 농산물 생산량 및 헥타르 당 작물보호제 사용량>



Fonte: SINDIVEG

[출처 : SINDIVEG]

전문가 의견

에두아르두 다에르(Eduardo Daher) 브라질 농업협회(ABAG) 회장은 'Lei 6.299/2002' 법안이 2022년 2월 국회를 통과해서 독성이 낮고 효율성이 높은 작물보호제들이 브라질에 많이 도입될 것이다"라며 "이 법안으로 신규 농약 등록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 약 8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농축산부가 작물보호제 등록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위생감시국, 연방환경청도 새로운 제도 및 시스템에 의거하여 빠르게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농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이 시점에 작물보호제 시장도 성장할 것이며 외국기업의 수출 및 투자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최근 브라질 농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농기계, 작물보호제, 스마트팜 기업들이 브라질 진출에 관심을 보인다. LG화학 자회사인 팜한농은 2021년 브라질에 법인을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현지시장을 공략하고자 한다. 이 회사는 2018년 부터 제조제인 테라도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은 작물보호제 기업의 브라질 진출 사례가 거의 없었지만 성공사례가 조금씩 나오면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브라질 작물보호제 시장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개선되고 있지만 브라질에서 작물보호제의 연방정부 등록 허가기간은 길고 절차가 복잡하다. 신청 과정 중 많은 서류를 포르투갈어로 작성해야 하고 규정도 한국과 다른 것이 많아 기업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브라질 작물보호제 시장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브라질 농약제품생산조합(Sindiveg), 위생감시국(ANVISA)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장 동향 및 제품 등록절차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지 수입회사나 에이전트를 발굴하여 함께 현지 시장을 개척하고 행정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브라질은 2020년 이후 작물보호제 원료 공급에 큰 타격을 입어 연방정부는 향후 자국에 작물보호제 연구시설이나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브라질 정부는 자국에 필요한 농약은 우선적으로 등록을 처리해 주기도 한다. 농약제품생산조합(Sindiveg) 등 기관은 매년 작물보호제 인증 검사기간 단축, 표준화, 투명성, 최적화 등을 요청하므로 제도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은 브라질 곡물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작물보호제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

자료 : 연방정부 관보, Canal Rural, Noticias Agrícolas, G1, Agrolink, Revista Globo Rural 등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3. 호주 PVC 바닥재 시장 동향

- 2021년 호주 바닥재 시장 소폭 하락, 코로나19 발 국내 건설경기 침체 영향
- 신축 주택 및 홈 레노베이션 수요 증가로 건축자재 및 바닥재 시장 점진적 성장세 보일 전망

상품명 및 HS C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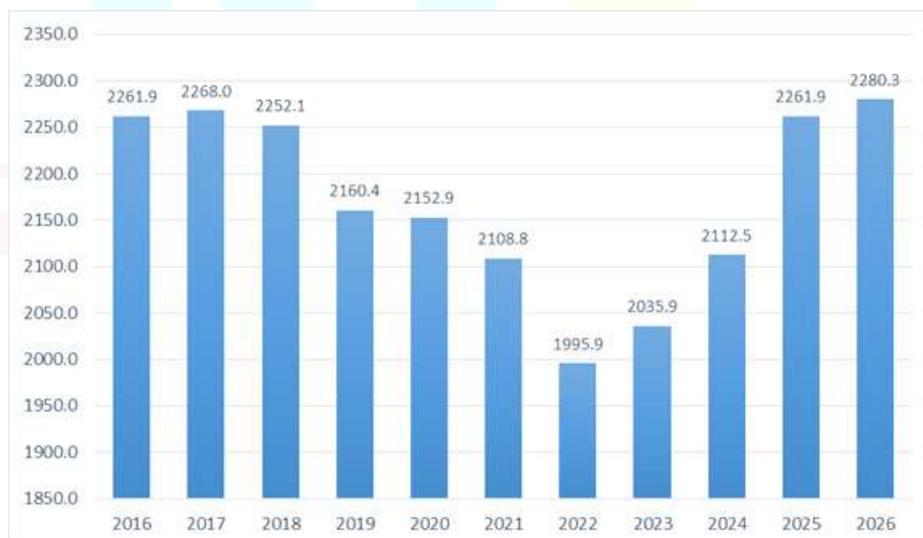
상품명: PVC 바닥재 (HS Code: 391810)

PVC에 가소제를 더해 유연성을 더한 바닥재로 저렴한 비용, 다양한 디자인과 함께 높은 내구성을 갖추고 있다. HS Code 391810는 염화 비닐 폴리머로 제작된 바닥 및 천장 덮개 제품으로 PVC 바닥재를 포함하고 있다.

시장동향

산업 조사 기관 IBIS World에 따르면, 호주의 바닥재 소매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약 21억 달러(30억 호주달러)로 집계된다. 코로나19로 건설 현장에서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며 지난해 호주 건설 산업 경기는 전반적으로 침체 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글로벌 물류 대란까지 더해지며 불안정한 수요와 공급으로 바닥재를 포함한 대부분의 건축 자재 시장 매출이 동반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늘고 있는 신축 주택에 대한 수요와 레노베이션 시장의 활성화로 향후 PVC 바닥재를 포함한 호주 바닥재 시장은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의 바닥재 소매 시장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2022년 부 통계는 전망치, 5월 11일 기준 AU\$1=US\$0.7로 환산한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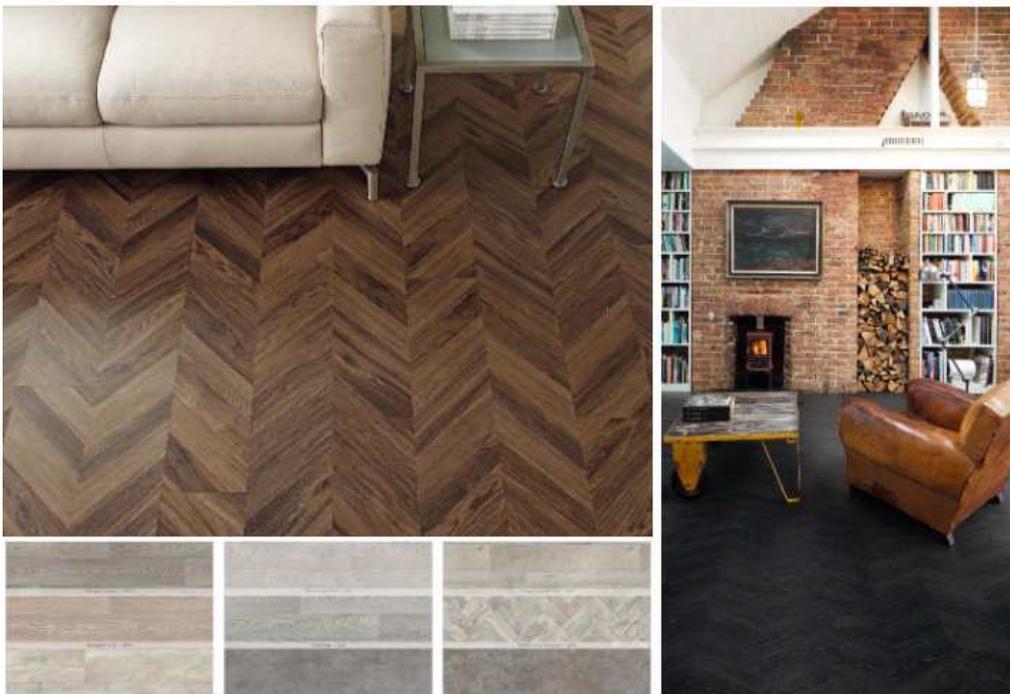
[자료: IBIS World]

2021년 기준 호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바닥재는 카펫으로 전체 소매 시장의 48.7%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 주거지의 난방 시스템은 한국과 같은 온돌이 아닌 히터를 사용해 실내 온도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바닥을 온기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카펫의 수요가 아직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어진 신축 아파트나 주택에서는 PVC 또는 타일 바닥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청결함과 관리의 편리성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PVC 바닥재의 수요 증가와 함께 난방 효과와 인테리어의 기능을 모두 갖춘 매트(Mat)와 러그(Rug) 제품의 매출도 함께 늘고 있는 추세다. 한편, 호주 바닥재 소매 시장에서 PVC 및 기타 바닥재 품목은 32.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신규 주택의 가격 상승으로 오래된 주택의 보수 및 인테리어 개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바닥재를 포함한 전반 건축자재 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 시드니 유력 언론사 시드니 모닝 헤럴드(Sydney Morning Herald)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호주의 홈 레노베이션(Home Renovation) 부문 소비는 79억 달러(11억4천만 호주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연계 지원 정책인 홈 빌더 활성화 패키지(HomeBuilder stimulus package)와 재택 근무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홈 빌더 활성화 패키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건축 및 건설 산업의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신축 주택 및 레노베이션의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진행됐다. 또한 지난해 시행된 대규모 락다운(Lockdown)으로 재택 근무 인력 41% 까지 대폭 증가하며, 사람들의 주거지 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과 수요 역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사회적 트렌드의 영향으로 호주의 인테리어 및 건축 자재 시장은 점진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호주 PVC 바닥재 취급 업체 폴리플로(Polyflor)는 올해 기대되는 바닥재 트렌드로 회색과 흰색 계열의 시원한 컬러와 컨트리 스타일의 어두운 초콜릿 및 호두 색상을 꼽았으며, 패턴으로는 헤링본(Herringbone)과 셰브론(Chevron) 스타일을 지목했다. 또한 최근 친환경 소재 바닥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하며, 관련 업계는 이러한 잠재 수요를 늘 염두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2022년 기대되는 PVC 바닥재 트렌드>



[자료: Polyflor]

수입동향 및 대한 수입규모

PVC 바닥재를 포함한 염화 비닐 폴리머 기반 바닥 및 천장 덮개 제품(HS Code 391810)의 수입 규모는 2021년 기준 2억5,996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9% 가량 상승했으며 최근 3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한국은 동 품목 대 호주 수출 2위 국가로 최근 3년 동안 완만한 성장을 보였으며, 1위 수출국인 중국(59.7%)에 이어 호주 수출 시장 19.4% 대의 점유율을 달성했다.

한편 동 품목 대 호주 수출 상위 10개국 중 중국, 한국, 대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유럽인 점을 고려할 때 호주 PVC 바닥재 수요는 저렴하고 가성비 높은 저가 제품과 고가의 브랜드 제품으로 양분화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3년 호주의 PVC 바닥재 포함, 염화 비닐 폴리머 바닥 및 천장 덮개(HS Code 391810)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액			시장 점유율			2020년 대비 2021년 증감률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전체		181,774	211,473	259,961	100.00	100.00	100.00	22.93
1	중국	92,589	117,239	155,182	50.94	55.44	59.69	32.36
2	한국	40,247	40,659	50,502	22.14	19.23	19.43	24.21
3	프랑스	9,103	9,361	10,574	5.01	4.43	4.07	12.96
4	영국	10,120	12,549	10,147	5.57	5.93	3.90	-19.14
5	벨기에	5,618	9,052	9,584	3.09	4.28	3.69	5.88
6	스웨덴	5,273	4,834	5,896	2.90	2.29	2.27	21.97
7	네덜란드	6,380	7,155	5,510	3.51	3.38	2.12	-22.99
8	독일	2,279	2,612	3,110	1.25	1.24	1.20	19.06
9	미국	3,821	1,977	2,560	2.10	0.93	0.98	29.48
10	대만	1,786	1,372	1,902	0.98	0.65	0.73	38.68

[자료: Global Trade Atlas]

경쟁동향

라미네이트 바닥재로도 잘 알려진 PVC 바닥재는 호주의 다양한 온 오프라인 바닥재 시장에서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다. 호주 PVC 바닥재 취급 유력 기업인 라미넥스 오스트레일리아(Laminex Australia)는 뉴질랜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각종 상업 및 가정용 건축 자재와 바닥재, 인테리어 자재를 생산하고 있다. 당사는 호주 전역에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며 현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다.

<Laminex Australia 2022 디자인 가이드>



[자료: Laminex Australia]

호주 PVC 바닥재는 제품의 브랜드, 시공사, 사양 및 규격, 품질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평균 시공 가격은 스퀘어 미터 당 약 14~56 달러(20~80 호주달러) 가량으로 파악된다. 한편, 호주 DIY 제품 전문 유통업체 Bunnings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라미네이트 바닥재의 소매 판매 가격은 아래와 같다.

<호주에서 판매되는 라미네이트 바닥재 가격 동향>

브랜드 및 제품명	제품사진	가격	크기
HanWood Mink Oak Home Laminate Flooring		AUS\$ 48.79 (약 US\$ 34.02)	7mm / 2.872m ²

<p>Floor Select</p> <p>Celestial Ash Bevelled Edge Laminate Flooring</p>		<p>AU\$ 48.99 (약 US\$ 34.16)</p>	<p>8mm / 2.13sqm</p>
<p>Medina</p> <p>Santos Mahogany Laminate Flooring</p>		<p>AU\$ 51.35 (약 US\$ 35.80)</p>	<p>12mm / 1.30m²</p>
<p>Smart Home Products</p> <p>Sound guard Darjeeling Acoustic Laminate Planks</p>		<p>AU\$ 89.97 (약 US\$ 62.73)</p>	<p>9.5mm / 2.38sqm</p>

[자료: Bunnings]

유통구조

호주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PVC 바닥재는 건설장비 수입업체 즉, 현지 건축자재 에이전시 및 도소매 유통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호주 건축 경기의 재개로 높은 가격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제조사들은 현지 건설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 제품을 공급하기도 하며, 소규모 수출자는 온 오프라인 유통사를 통해 납품하는 경우가 많다.

관세율 및 인증

HS Code 391810에 대한 호주의 대 한국 수입 관세율은 0% 이다. 기존 5%의 관세율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4년 한국-호주 FTA 체결 직후 무관세로 변경되었다. 이외 해당 제품 10대 수출국 중 중국, 영국, 미국이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로 HS Code 391810에 대한 호주 수입 관세율 0%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HS Code 391810에 대한 호주의 일반 수입 관세율은 5% 이며, 호주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는 기본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 (GST, Goods and Services Taxes)가 부과된다.

호주에 PVC 바닥재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표준인 Standards Australia(AS1889.2-1985 PVC Floor tiles, Part 2- Flexible) 규격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호주 시험 기관 NATA(National Association of Testing Authorities, Australia)과 같은 현지 제품 테스트 기관을 통해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해당 인증은 인증 대행 기관인 사이 글로벌(SAI Global)을 통해서도 상담 및 진행이 가능하다.

시사점

코로나19로 전반 건축 경기가 크게 침체되었으나 호주의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웠다. 유통

자산에 대한 불안감 고조로 안정적 자산인 부동산과 현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렌드로 오래된 주택을 구매해 인테리어를 손 보거나 반대로 살고 있는 집을 깨끗하게 수리한 후 높은 가격에 매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 시장이 조금 주춤한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인테리어 개선에 대한 고객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 한편, 호주의 최신 바닥재 트렌드는 Sydney Build Expo, Sydney Home Show, Sydney Renovate & Build Home Show 와 같은 현지의 유력 전시회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자료원: IBIS World, Global Trada Atlas, Sydney Morning Herald, Polyfor, Bunnings, Australia FTA portal, Laminex Australia, 호주 현지 주요 언론사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